Issue Comment

2024. 7. 25

LG디스플레이 034220

2Q24 실적 Review, 설명회 Q&A 정리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02. 6454-4862
sunwoo.kim@meritz.co.kr

2Q24 영업손실은 시장 기대치 대비 양호한 수준

LG디스플레이는 2Q24 영업손실 93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를 크게 축소함(1Q24 영업손실 4,694억원). 전 제품군에서 출하가 증가한 가운데 OLED 제품군 출하 및 비중 확대가 돋보임(OLED 비중: 2Q24P 52%, 2Q23 42%, 1Q24 47%). IT용 OLED 패널 양산 본격화, 대형 OLED 패널 생산 증가와 우호적 환율 영향에 적자폭은 크게 축소

3Q24 가이던스는 출하 면적 +5% QoQ 내외 증가, ASP는 flat QoQ를 제시. 중대형 제품군 패널 구매 확대 및 계절적 성수기 영향에 출하 면적은 증가. OLED 패널과 중대형 패널이 동시에 증가하며 ASP는 전분기 대비 큰 변동 부재할 전망

그 동안 진행된 원가 혁신 및 운영 효율화 노력을 현재도 전개 중. 3Q24E 중 인건비 절감 계획을 언급했으며 광저우 LCD TV 팹 매각 건에 대해서도 과거 대비 진척이 있는 상황. 1Q24에 이어 13조원대 순부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팹 매각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강화가 연내 완료를 목표로 가속화될 전망

2024년은 과거와 달리 고객사 신규 스마트폰용 모바일 OLED 양산이 조기에 이뤄짐. 기술적 이슈로 1개분기 내외 지연이 초기 2년 간 이뤄졌지만 2024년은 기술 안정성 확보 및 생산 시설 확대가 이뤄짐. 동사는 모바일 OLED에서는 매출과 손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개선을 예상함

동사는 지속적인 1) 수주형 비중 확대 노력 속, 2) 하이엔드 OLED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믹스 개선을 꾀하는 중. 중형 OLED도 양산 개시 후 출하량이 확대되는 등 OLED 비중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됨. 동사의 주가는 모바일 OLED의 빠른 양산 및 수익성 개선 기대로 반등한 후 최근 조정기를 거치는 중. 하반기부터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됨. 외형 성장과 흑자 기조 전환이 확인될 경우 긍정적 주가 흐름이 이어질 전망

실적발표 주요 데이터 정리

응용처 별 매출 비중

- IT 44%, TV 24%, 모바일 등 23%, Auto 9%
- 전 제품군 출하량 증가하였으며, OLED 제품군 비중 확대
- IT용 OLED 양산 본격화되며, IT 비중 확대
- OLED 매출 비중은 52% (+5%p QoQ)

2Q24 출하 면적 / ASP

- 출하 면적: 650만㎡ (+23% QoQ)
- 면적 당 ASP: 779달러 (0% QoQ)

3Q24 가이던스

- 출하 면적: 한 자릿수 중반 QoQ 증가. TV · IT 등 중대형 제품 출하 증가와 계절적 성수기 영향
- 면적 당 ASP: 전 분기 대비 보합 수준. ASP 높은 OLED 패널의 출하 확대가 예상되지만, ASP 낮은 중대형 제품군의 패널 출하가 동시에 증가한 영향

CFO Highlight

- 대외환경 불확실성 지속되지만, OLED 중심의 사업구조 이어가며 대응력 높일 것
- 중장기적으로 사업구조 고도화, 비용구조 개선, 운영 효율화 등에 전사 역량 집중

사업 부문별 코멘트

- 대형 OLED: 글로벌 전략 고객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소비자와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하이엔드 라인업 확대하며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 확보할 계획
- IT OLED: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업체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나 탠덤 기술 기반으로 출하를 확대하며 하이엔드 B2B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 이어갈 계획
- 모바일: 확대한 생산 인프라 기반으로 전년동기 대비 출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매출과 손익 개선을 기대
- Auto: 전기차 보조금 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방시장의 변동성 확대되고 있지만 OLED, LTPS, LCD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하며, 전기차와 내연차 전반의 수주 활동 진행할 계획

투자 활동 코멘트

- 2024년 CAPEX: 2조원대 예정
- 대외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조기에 성과 확보가 가능한 수주형 사업과 필수 경상투자에만 집중

표1 LG디스플레이 2Q24P 실적 Review

(십억원)	2Q24P	2Q23	(% YoY)	1Q24	(% QoQ)	컨센서스	(% diff.)	당사예상치	(% diff.)
매출액	6,708.2	4,738.6	41.6%	5,253.0	27.7%	6,423.9	4.4%	6,207.4	8.1%
영업이익	-93.7	-881.5	적자축소	-469.4	적자축소	-298.5	적자축소	-111.4	적자축소
세전이익	-432.6	-877.1	적자축소	-989.3	적자축소	-383.2	적자확대	-481.6	적자축소
지배주주순이익	-506.5	-858.1	적자축소	-783.2	적자축소	-402.5	적자확대	-455.1	적자확대
영업이익률(%)	-1.4%	-18.6%		-8.9%		-4.6%		-1.8%	
순이익률(%)	-7.6%	-18.1%		-14.9%		-6.3%		-7.3%	

자료: LG디스플레이,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LG디스플레이 실적설명회 주요 Q&A

Q1 1, 2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였는데, 하반기 실적 예상치는?

A1 턴어라운드 집중하고 있고, 아직 변수가 많은 시장 상황으로 경영 성과 추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대외 변동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당사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 수요의 불확실성은 여전. 3Q24 구조조정이 예정되는 등 내부적인 상황도 고려해야함. 전사적으로 사업구조 고도화, 비용구조 개선 등을 지속 전개할 예정

Q2 향후 광저우 fab 매각 방향성에 변화가 있는지? 매각 예상 시기나 자금 활용 계획은?

A2 유휴 전략 자산 행방에 대해 고민 중이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 중.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보다 진척이 있는 상황.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어떤 거래가 이뤄지든 시장의 예상치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다만, 시간을 주시면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며 자금 활용 방안도 해결 후에 말씀 드릴 예정

Q3 북미 고객향 물량의 조기 양산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올 하반기 출하량 가이던스는?

A3 스마트폰 사업은 고객사가 제한적이기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움.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성장률도 줄어들고 있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OLED 시장의 성장 방향성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 당사는 초기 2년동안 공급 이슈가 있었지만, 적기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 시설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였음. 이에, 수익 확장이 기대되는 대목임

Q4 고부가 LCD 위주의 판매 전략 하반기에도 유지하는지?

A4 IT시장 회복이 지연되지만 당사의 차별화된 B2B 포트폴리오와 고객사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효율성 확보 주력 중. 모니터는 브랜드 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트, 패널 모두 소폭 성장이 예상됨. 노트북은 세트 기준 소폭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패널은 YoY 성장이 예상됨. 하이엔드 시장 회복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패널 가격은 연중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Q5 대형 OLED 흑자전환 시기와 흑자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A5 대형 OLED, LCD의 시장 정체,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변동성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전략 준비 중이며, 크게 1)제품, 2)내부 운영 개선, 3)고객사와 긴밀한 협력. 기존 제품보다 원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 준비 중이며, 시장 니즈 반영한 제품 고도화, 하이엔드 라인업 확대를 준비 중인 상황. 내년 하반기, 투자 상각 완료되는 시점부터 유의미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는 상황

Q6 전기차 캐즘 우려가 있는데, 2024년 전장 매출액과 수주잔고 추이는?

A6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의 수요 예측 변동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당사는 OLED, LTPS LCD 다양한 포트폴리오 보유하였으며, 고객사와 협력하며 안정적인 수주 활동 이어가는 중. 매출액과 수주잔고는 전년대비 10% 중반 수준의 성장을 기대

(자료: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 LG디스플레이)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